

# 일본의 문학번역 지원의 현주소

삼성문화재단 기획 《일본문학의 세계화과정 기초연구》 결과보고

일본문학의 세계화에 관한 심층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문화재단이 기획 후원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조사한 《일본문학의 세계화과정 기초연구》는 일본문학의 번역출판 정책과 지원사항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 가운데 일본 문학 출판업계의 국제 활동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우리의 문학출판 대외정책 전반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편집자〉

일본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특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점,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50년대부터 꾸준히 번역작업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제교류기금은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어에 의한 일본관련 도서의 출판과 일본작품 번역에 대한 지원, 국제도서전의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번역비의 40-60%, 제작비의 4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상도서는 일본에 관계된 주제를 다룬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외국도서로, 신청 다음해에 출간예정인 책에 한한다. 일본관계 개설서, 고전 명저, 일본에 대한 외국명저로 그 언어로는 초역인 것, 일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 번역서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출판사에서만 가능하다.

번역후원 프로그램은 일본의 우수작품을 타언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업이다.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에서 일본을 주제로 다룬 책 가운데 출판을 전제로 현재 번역이 진행 중이거나 완성된 작품 중에서 선정, 번역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도서관 후원 프로그램도 있다. 외국에서의 일본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도서관이나 교육기관에 도서자료, 비디오 테이프, CD 등 자료를 기증한다.

일본은 주요 문학작품을 50년대부터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을 통해 집중적으로 발표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영문판 85종, 프랑스어판 35종, 스페인어판 1종, 독일어판 6종 등 총 135종의 문학작품을 발간했다.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은 소수언어권 문학작품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예술의 창의성 고양과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은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에 현대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기보다는 고전·문학사·희곡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을 골고루 발행한다. 문학 주변적인 학문과 연구결과도 중요하다는 판단결과다. 이런 전략은 일본문학을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일본학을 동시에 진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문학작품은 저명한 일부 출판사에서 집중출판하는데, 미국 유명 대학출판국이 일본문학작품의 출판사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하버드·피츠버그·콜롬비아대학 출판국이 대표적이다.

민간단체의 문학지원 사업은 기업메세나 협의회를 비롯한 문화재단에서 이뤄진다. 도요다재단의 ‘동남아와 남부아시아의 이웃알기 번역출판프로그램’, 국제언어문화재단의 문학작품 번역출판 등이 있다.

문학 관련 출판계의 국제활동도 활발하다. 강담사의 강담사인터내셔널은 문학뿐 아니라 일본문화 전체를 외국에 전달한다. 강담사인터내셔널의 일본문학 세계화 과정에 대한 기여는 거의 절대적이다.

30년 이상의 국제활동으로 강담사는 92년 현재 영문타이틀이 1100여종이 넘는다. 또 1년에 50종 이상의 새로운 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150종이 넘는 공동출판물과 40개사 이상 외국사와의 공동작업을 펼쳤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강담사 이름으로 나온 외국어판이 4백만부 이상일 만큼 활동은 활발하다. 연평균 100여종 정도 외국도서의 번역출판물도 간행한다. 주로 일본소설의 영어번역이 많아 94년 노벨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의 작품번역을 비롯해 아베 고보, 가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 등 유명작가의 작품을 영문번역 출판했다.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노마 쿡쿠르’, 일본문학 작품을 훌륭하게 번역해낸 번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마상’ 등 국제적인 ‘상’도 제정해 해외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맺고 있다. 노마상의 첫 수상자는 미시마

일본문학의 세계화사업은 문학번역의 홍보·교류에 중점을 둔 1단계와 출판관련 인력개발에 주력했던 2단계에서, 지금은 점차 일본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에 비중을 두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문학의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일본 출판계의 관심은 높다.

유키오의 단편 《Acts of Worship》을 영역한 존 베스터였다.

찰스 터틀사는 미·일 양국 문화교류 역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년에 40여종 이상의 책을 발간하는데,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어학서로 연간 약 15종을 출판한다. 아시아에서 인쇄하고 국제 유통네트워크로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재와 영어교재 기획의 비중이 높다. 찰스 터틀사처럼 영어출판만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는 저팬퍼블리케이션즈, 당코, 웨더힐 등이 있으며, 외국 도서 수입업체인 요한은 미국 출판업체에서 증쇄권을 얻었고 영어 엮기본 발행도 시작하고 있다.

‘출판문화국제교류회’(PACE)는 주요 국제도서전시회와 외국에서의 일본도서전 행사 주관, 외국 출판계와의 세미나·간담회 추진, 해외에 일본도서 기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일본세계박람회 기념사업회’ ‘일본 100권 번역회’ 등을 통해 일본 관련 책의 번역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공동출판의 대형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

일본의 번역출판 장려사업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먼저 일본은 20년 이상 해외 출판사들의 공동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대형 프로젝트인데, 시각적으

로 관심으로 끄는 전면 컬러판 도서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1년에 출판된 《The Frescoes of Pompeii》인데, 독일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출판사들이 이어나미서점과 함께 참가했다.

해외에서의 일본도서 출판 사업도 장려하고 있다. ‘일본저작권협회’는 소설·비소설 및 아동서의 번역판권을 협의하며 볼로냐,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적극 활약한다. 공동번역안도 취급하는데 국제적 명성이 높은 미즈마사 아노의 《All In a Day》는 대표적인 예이다. 나츠키 이케자와, 오토히코 카가, 모리오 키타, 바나나 요시모토 등 유명작가의 번역권도 갖고 있다.

‘오리온 프레스’사 역시 일본작품의 번역출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타니자키 준이치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 아베 코보 등 거장들의 작품을 유럽과 그밖의 여러나라에서 출판했다. 일본의 문학번역은 90년까지 문에서 15,000여종, 비문에서 5250종에 이른다.

일본문학의 세계화사업의 역사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문학번역에 대한 홍보·교류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에서는 출판관련 인력개발에 힘쓰는 등 출판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점차 문학 외적인 부분, 일반적인 일본문화의 소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